

## 유가 폭락과 장기침체,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까?

2015.01.20 | 이상동\_새사연 부원장 | sida7@saesayon.org

새사연은 2008년부터 매 년 진보 정책 연구소 최초로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거, 노동,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를 진단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망 보고서 역시 총 8회에 걸쳐 연재됩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와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2015년 올해에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반토막 난 국제유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4년 조짐을 드러낸 이러한 변화 요인들이 2015년 이후에도 장기화된다면 국내 산업에도 구조 변화의 압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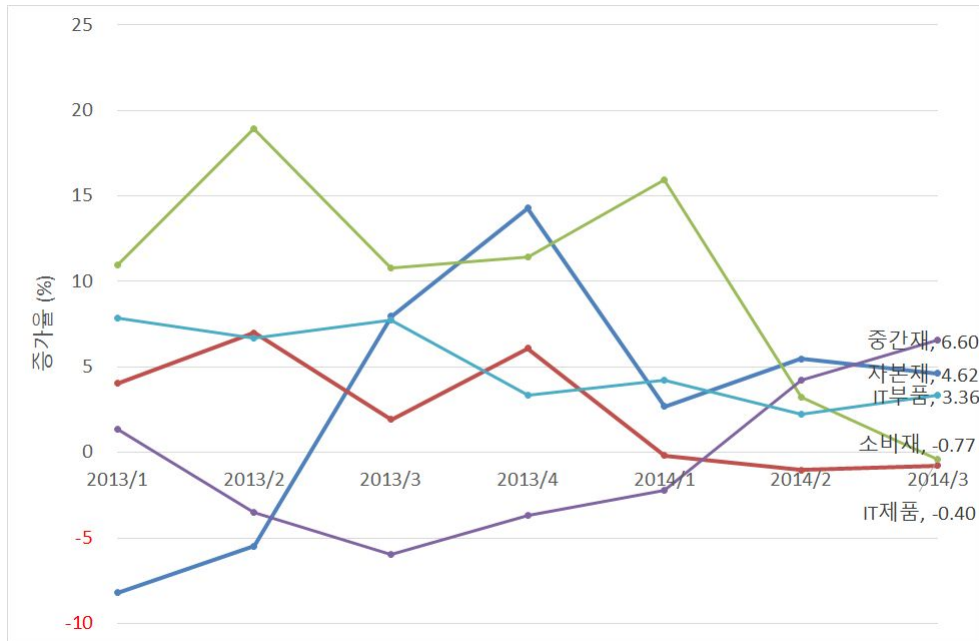
### 2014년 산업 동향

#### 가. 하반기로 갈수록 나빠진 수출 실적

먼저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하는 수출 부문을 간단히 확인해 보자. 2014년 주력산업 수출은 반도체, 철강, 조선의 주도로 3.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대 이후 수출 증가를 주도했던 디스플레이와 고유가의 혜택이 예상되었던 정유부문의 수출은 부진했다.

IT산업은 예년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세부 산업군으로 분류해 보면, 디스플레이, 가전 등의 IT제품 산업군은 부진하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품 등 IT부품 산업군은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산업군별 최근 수출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출처: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 ISTANS <http://www.istans.or.kr>

지난 해 분기별 추세에 기초해 볼 때, 첫째 철강과 화학 등이 주도하는 중간재 산업이 가장 호조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중간재 산업은 수출액 규모로 볼 때 제조업 전체의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자동차, 조선 등의 자본재 산업은 최근 수년 동안 계속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다소 주춤하였다. 셋째, 가전과 통신기기 등의 IT제품 산업군과 음식과 의류 등의 소비재 산업군은 지난해에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실적이 부진하여 마이너스 성장 기간을 보이기도 하였다. 넷째, IT부품 산업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품목별로 해외 시장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표1. 최근 제조업 분기별 수출증가율

	2013/3	2013/4	2014/1	2014/2	2014/3
제조업	2.81	4.71	1.68	3.22	3.61
자본재	7.97	14.27	2.68	5.48	4.62
자동차	4.4	10.25	4.42	3.95	2.58
조선	35.9	29.24	-5.41	15.53	4.97
철도	1.74	8.46	21.52	22.23	-36.28
항공	71.61	117.95	27.75	35.3	-22.28
일반기계	-3.87	10.07	4.62	0.18	10.53
정밀기기	6.52	5.85	4.17	0.9	2.32
소비재	1.93	6.07	-0.17	-1.04	-0.77
음식료	-5.05	0.78	-0.39	5.3	7.26
의류	-0.4	20.75	12.99	9.46	9.6
가죽·신발	13.17	3.17	-2.82	-26.17	-8.9
인쇄	22.62	67.75	-17.53	3.1	-26.74
가구·기타	7.76	4.94	-3.95	0.77	-12.05
IT제품	10.79	11.41	15.94	3.23	-0.4
가전	14.12	17.53	8.77	5.92	-16.59
통신기기	15.7	14.98	24.14	3.41	9.46
컴퓨터	-12.53	-14.05	-0.98	-3.7	1.61
중간재	-5.98	-3.67	-2.2	4.2	6.6
철강	-15.22	-1.98	2.0	11.18	19.41
비철금속	-20.76	-17.93	-9.69	-7.85	6.76
조립금속	-14.28	-21.47	11.05	10.8	9.61
석유화학	3.06	5.05	-3.85	2.99	5.79
정밀화학	3.15	11.71	5.59	10.1	16.98
의약	-2.53	2.72	9.16	16.56	7.69
섬유	-3.63	5.84	0.41	-1.38	-0.38
고무	-6.85	-0.3	-3.07	-0.91	2.57
플라스틱	10.14	11.77	5.67	-0.94	0.59
석유정제	-8.47	-10.99	-6.88	5.28	2.92
제지	6.81	14.6	0.57	-2.97	-7.12
시멘트	-7.7	26.42	-3.06	9.79	2.88
유리	-8.08	-11.26	-10.46	-0.04	26.14
IT부품	7.71	3.35	4.24	2.24	3.36
반도체	22.32	13.91	13.66	6.54	4.36
디스플레이	-16.46	-16.2	-13.06	-4.52	3.59
기타 전자부품	7.67	6.52	4.35	-3.04	-2.24

주) 굵은 글씨는 2014년 수출 호조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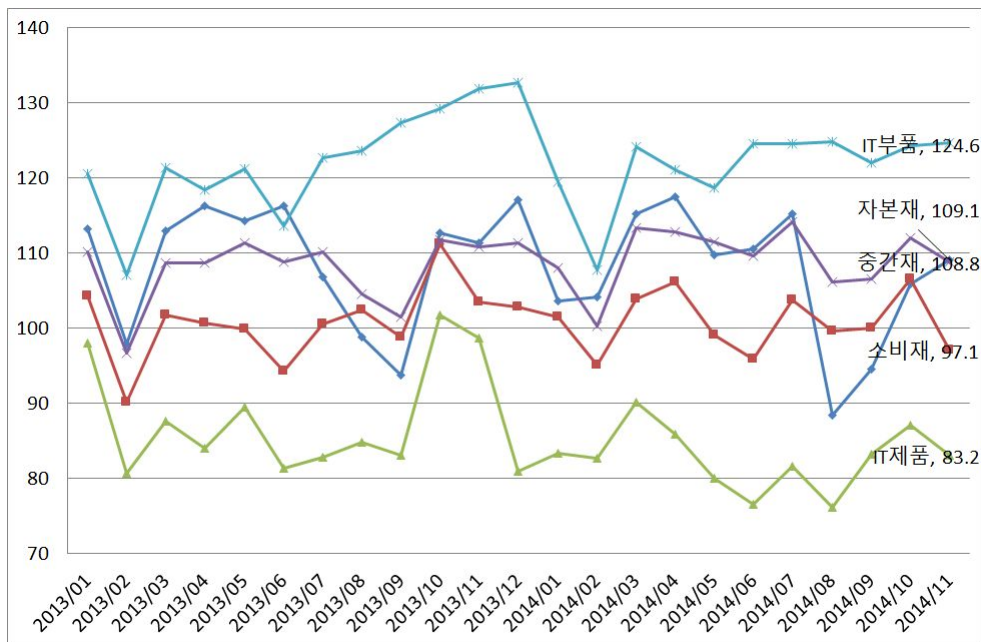
출처: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 ISTANS <http://www.istans.or.kr>

## 나. 생산과 내수의 정체

지난 해 수출이 일정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은 반도체와 철강 외의 모든 업종에서 대체로 부진하였다. 철강이 수출확대와 신규설비 가동으로 7% 내외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출호조를 보였던 조선은 2013년 이전의 저조한 수주물량의 영향으로, 자동차는 수출부진과 수입차 증가 그리고 석유화학 등은 대내외 수요부진으로 오히려 생산이 감소하였다. IT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수출확대와 수출 증가로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보통신기기가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디스플레이와 가전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생산 감소세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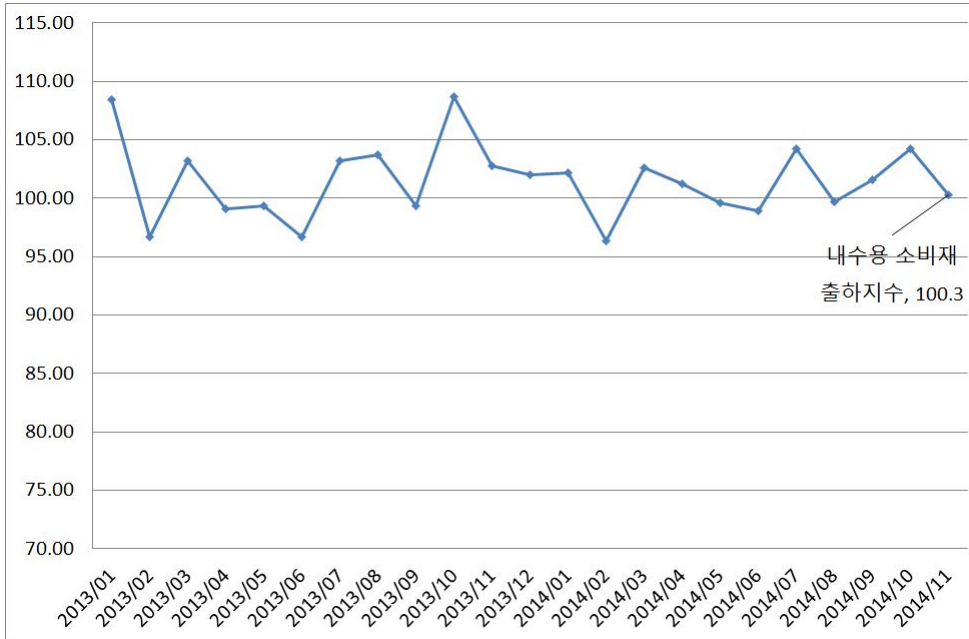
내수는 소폭 증가했으나 일부 정체를 보였다. 철강, 자동차, 일반기계 등은 내수가 증가하였으나 섬유, 석유화학과 정규는 소비침체, 전방산업의 수요부진 그리고 유가 하락 등으로 내수가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수출이 기대보다 저조했던 IT 산업군은 가전과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내수가 다소 증가했다. IT 산업군의 내수 증가는 월드컵 특수와 혼수가전, 스마트기기 시장 확대와 패널 대형화 등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2. 산업군별 최근 산업생산지수 변화(2010=100)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

그림 3. 내수용 소비재 출하지수(2010=100)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http://ecos.bok.or.kr>

전반적으로 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수출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민경제의 성장에 있어 수출에 비해 내수가 따라주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입은 석유화학 외에 모든 업종에서 1~7%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력산업과 대기업의 수출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괴리되는 가운데 수입이 이를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된 것이다.

## 2015년 산업 · 에너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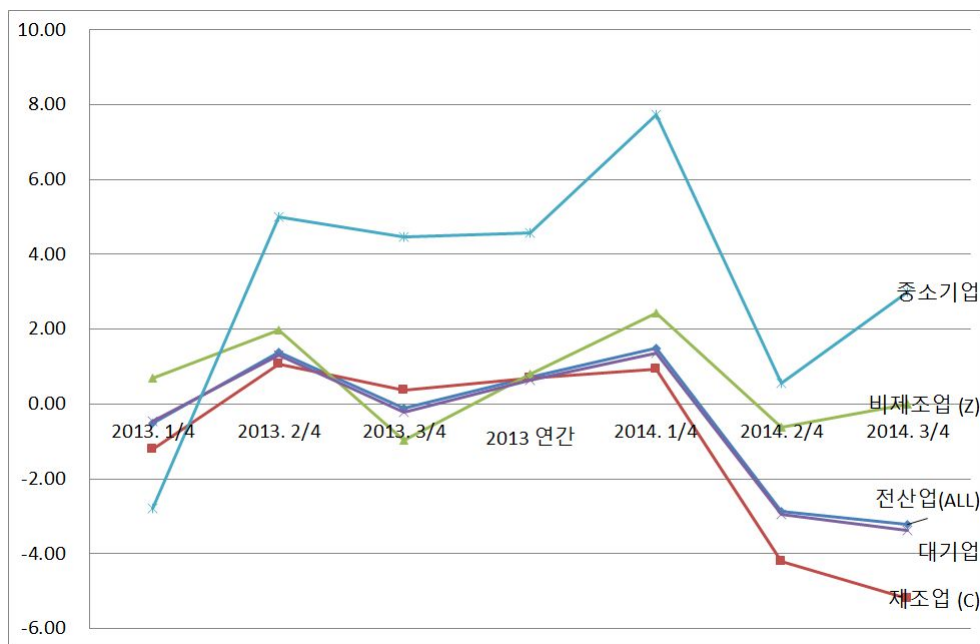
지난해는 수출주도의 한국경제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주력산업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석유화학 분야가 고유가 시대에도 수출과 생산 등에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기침체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산업전망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는 유가 변동과 경기 침체로 보이며 모두 세계경제 상황과 밀접히 맞물려 있다. 이는 내수 규모가 튼튼하지 않은 한국경제의 구조로부터 비롯된 피할 수 없는 취약점이라 할 것이다.

## 가. 2015년 초반,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 대기업에까지 확대

2015년 세계 경제는 주요 국가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면 침체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벌써부터 한국경제의 주력인 대기업의 성장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 지난해 2분기 이후 상장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산업의 성장성을 좌우하는 대기업, 제조업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그림 4. 상장기업 매출액증가율 변화(전년 동기대비)



출처: 한국은행 상장기업 경영분석 각 분기 및 속보 ECOS <http://ecos.bok.or.kr>

지난해에 우리나라 산업은 생산과 내수의 정체 혹은 부진 속에서도 여전히 수출을 통해 성장한 바 있다. 하반기부터 세계경제 침체가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까지의 지표는 이것이 수익성의 하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5년 초반에는 수출 대기업부터 수익성 악화 위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 대기업은 외환 헷지(hedge) 장치를 통해 이런 위험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 자체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기업들은 위험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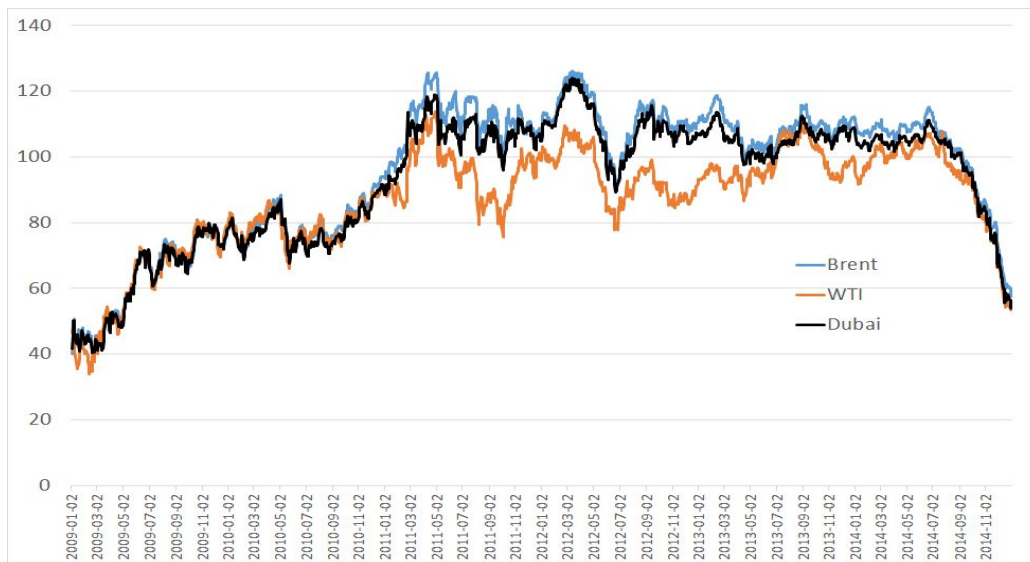
## 나. 국제유가, 주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없는 한 2015년에도 약세 지속

2015년 벽두부터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제유가의 하락은 국제원유 시장 내부의 요인과 함께 세계경제 및 달러화 가치라는 외부의 요인, 그리고 중요 플레이어들의 전략적 선택 요인 등이 결부된 결과로 해석된다.

먼저 공급상황을 보면, 이미 오래 전부터 이른바 셰일가스 붐으로 공급우위가 이어져 왔다. 중국 등 개도국이 수요증가를 주도했으나 OECD 국가들의 수요감소가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산유국들이 공급우위 시장구조를 당분간 용인한다는 것을 확실시함에 따라 방아쇠를 당기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여기에 달러화 강세라는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이 결부되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하였다.

2014년 상반기까지는 공급우위에도 불구하고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정불안, 국제자원 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 등에 의해 고유가가 지속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하반기부터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원유공급이 안정화되고 세계경제 침체가 우려되자 유가의 하방압력을 제한하던 요인들의 힘이 약화되었다.

그림5. 국제유가 변동 추이 (단위: US\$/bbl)



출처: Bloomberg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 밑으로까지 하락했으나 2015년에 반등요인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세계경제의 침체, 원유생산 과잉 지속, 달러화 강세 등 지난해 국제유가를 하락시켰던 요인들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유가하락에 의한 물가 하락이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 경기회복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효과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므로 매우 불확실한 기대를 안고 있는 시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Non-OPEC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의 재정 적자와 외환 보유 감소가 올해 더욱 심각해진다고 볼 때 유가 변동이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 결론

산업별로 대략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면, 먼저 ,IT 제품은 지난해와 같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 산업의 상대적인 호조와 가전과 정보통신기기 등 제품 산업의 열위를 들 수 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자본재 산업군은 대외 여건의 악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조선의 경우 최근 수주물량이 적어 실적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해 가장 두드러진 생산 증가율을 보인 철강의 경우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수요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실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상의 산업별 전망들은 앞서 언급한 세계경제 침체와 향후 전개 방향에 기초한 것이다. 즉, 주력산업들이 올해에는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실적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한편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인 유가의 영향을 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유가 현상은 세계경제 침체와 구조적인 수급 불일치 등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2015년 한해 동안에는 유가가 하락한다 해도 실물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나타나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은 2015년 올해 불확실성을 동반한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 하에 놓여 있다.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나아가 저유가 현상이 고정화 될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





## 2015 새사연 전망 보고서 목록

날짜	분야	제목	작성자
1월 8일	한국경제(1)	'가상의 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1월 12일	세계경제	약 엔, 강 위안, '슈퍼 달러'의 시대 도래?	박형준
1월 15일	노동·고용	노동 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1월 20일	산업정책	유가 폭락과 장기침체,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까?	이상동
1월 22일	주거정책	추후 공개	강세진
1월 26일	복지정책	추후 공개	이은경
1월 29일	돌봄정책	추후 공개	최정은
2월 2일	종합	추후 공개	새사연